

한국 명산 16좌 등반 '밀레산행' 마친 엄홍길 대장

“우리 산천의 사계 호남 등산가들과 함께해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엄홍길(53) 대장은 지난 23일 한국 명산 16좌 대장정을 마친 후 “너무나 가들어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 가는 때에 생명수와 같은 단비가 내려 너무나 기분이 좋다”면서 “광주시민의 긍지자이 어너지를 북돋워주는 무등산에서 산행을 마무리하게 돼 뿐만 아니라”고 밝혔다.

광주일보와 (주)밀레가 공동 주최한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원정대’는 지난해 5월 충남 계룡산을 시작으로 주왕산·면산·민주지산(삼도봉)·덕유산·내장산·천관산·가야산·월출산·두륜산·마이산·황매산·대둔산·모악산·무등산 등 전국 유명 산을 1년 4개월에 걸쳐 두루두루 누볐다.

◇엄 대장과 함께 한 행복한 산행길=사계절 끊임없이 진행된 깨끗이 물 풀 풀, 한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 우리나라 산하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던 뜻깊은 여행(旅). 정(旅程). 소장창 340여 명에 불과했던 참여인원도 회를 거듭할수록 광주, 전남·북 등산 애호가들의 열띤 응원을 얻으며 마지막 산행에는 8배에 가까운 2700여명으로 늘었다.

이런 응원은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완등한 ‘캡틴 엄홍길’과 산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었다.

한국명산 원정대 참여자들은 세계 산악사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산악인과 산행을 함께 하면서 많은 용기와 도전정신, 힘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엄 대장 역시 “그동안 동행한 광주, 전남·북 등산 애호가들과 정이 들어 가족같고 동료의식을 느낀다”고 한국명산 산행에 의미를 부여하며 호남지역 등산 애호가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히말라야의 탱크’로 불리는 엄 대장은 1985년 에베레스트에 첫 발을 들여놓은 후 2000년 K2를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개를 모두 올랐고, 8000m가 넘는 위성봉



2개(로체샤르·알롱카)를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산악인이다.
특히 엄 대장은 1998년 안나푸르나에 4번째 도전할 당시 추

락하는 세르파를 구하려다 오른발 발목뼈가 180도 꺾여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7600m 지점에서 4500m 지점의 베이스캠프까지 2박3일 동안 훈자함으로 기어 내려왔다.

치료 당시 의료진은 등정은 물론 걷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했지만 엄 대장은 끊임없는 재활훈련 끝에 10개월 만인 1999년 4월 다시 안나푸르나를 찾아 끝내 등정에 성공했다.

◇네팔 오지에 16개 학교 건립 추진중=엄 대장은 ‘자승회 강’(自勝最強)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16좌 완등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엄 대장은 2008년 ‘엄홍길 휴먼재단’(www.uhf.or.kr)을 설립하고 히말라야 오지에 네팔 어린이를 위한 16개의 학교를 짓는 ‘휴먼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월 현재 4개 학교가 완공됐고, 2개 학교가 공사중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안나푸르나로 가는 길목인 ‘타파바니’ 지역에 7 번째 학교를 기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엄 대장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을 심어주는 등산 프로그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대학생 155명과 함께 강원도 고성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DMZ(비무장지대) 155마일(250km)을 14박15일 동안 걸었다. 엄 대장은 “불볕더위 속에서 하루 8~10시간을 걸으면 분단의 아픔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엄 대장은 한국명산 원정산행을 마무리하며 “같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길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듯이 새로운 도전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 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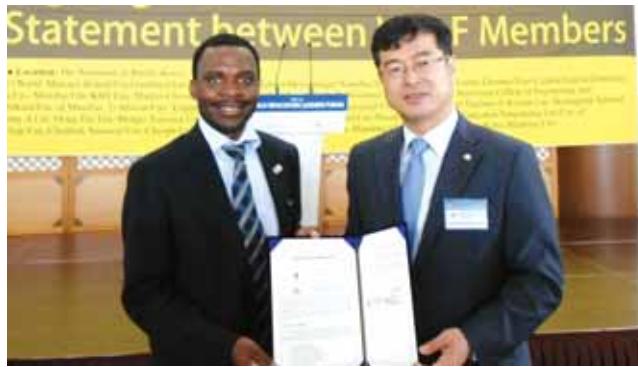
/사진=최현배기자 cho@kwangju.co.kr

언론진흥재단-방송광고공사 NIE 포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소장 노성환)는 지난 2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 강당에서 NIE 활성화 및 산학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목포대, 아프리카 4개국 국립대와 교류 협정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는 최근 부산서 개최된 ‘제1회 세계장관·총장포럼’에 산학협력단 김정모 단장이 참석, 아프리카 4개국 국립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골든벨’ 울린 여수 섬마을 고교생

전교생 45명…여남고 3년 진성일군

전교생이 45명인 여수 섬마을 고교에서 ‘도전 골든벨’이 울렸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 위치한 여남고 3년 진성일(19)군이 지난 23일 교정에서 촬영된 KBS TV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의 1인으로 남아 95번째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됐다.

초석특집으로 마련된 이날 녹화현장에는 재학생과 주민, 교사 등이 모여 응원했다. 이날 녹화 분은 내달 22일 일요일 오후 7시 10분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K-water 영산강문화관 ‘한여름 밤의 축제’

K-water 영·섬통합물관리센터(센터장 이현노) 영산강문화관에서 긴 여름 밤을 색다르게 보내는 행사가 열렸다.

영산강문화관은 지난 23일 영산강변에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축제’를 영산강문화관 주변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산강문화관을 비롯해 한국영상자료원, 나주 배꽃생 활협동조합, 나주자연예술총연합회 함께해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 제공했다는 평이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을 찾은 100여명의 시·도민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하모니테라피팀’의 공연과 난타 무대로 시작해 색소폰, 오페라·현주와 7080의 흥겨운 통기타 공연 무대가 이어졌다. 또 마술쇼와 한국영화 ‘미나문방구’도 상영됐다.



이밖에 영산강문화관 전시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영산강변 야생화를 주제로 한 ‘영산강 야생화전’이 나주자연예술총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봉필호(광주시 서구청 안전총괄과장·전·서창동장)·이순자씨·장남황세군·백학인·김정숙씨·오녀·미경양=31일(토) 오전 11시 50분 허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로즈홀.

▲최동웅·박춘심씨·아들 현우군 서상재(전·전남도청 건설국장)·문남희씨·딸 윤경양=9월 1일(일) 낮 12시 50분 허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로즈홀.

▲나상우(전·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최선숙씨·차남 지환군 김용근·이점기씨·처녀 혜민경=9월 7일(토) 낮 12시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 피로연=31일(토) 오후 6시 호텔 프라다 3층 크리스탈룸.

동창동문회

▲송원고등동문회 정기월례회=9월 3일(화) 오후 7시 농성동 삼복제

딩홀 4층 062-384-744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광주남구중동독관리센터 가족교육프로그램안내=‘BEAUTIFUL’ 문제 없이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움·종독으로 고령받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 일시는 20일·27일, 장소는 광주남구중동독관리센터(남구 미래동병원 앞) 광주남구중동독관리센터 062-413-1195, 062-412-1464(담당자 김영우).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이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휴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게임 등)과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기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모집

▲광주북구중동독관리센터 “담배, 와

강좌=9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9시(무료) 062-526-3370.

▲‘학습동기향상 및 시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20일~22일·27일~29일(오전 10시~11시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선착순 10명062-268-1388.

▲소통·방통 유쾌한 가족을 위한 영화치료·토일렉 참가자=28일(수) 오전 9시 30분~낮 12시 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 또는 학부모 062-268-1388.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2026~2027.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지지 서비스’=회원 정신건강상담서 서비스 무료제공 및 민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제공(주 5일 운영) 062-223-0468.

▲‘밀알중앙회 영산강환경대학 명예 환경감시원 양성과정 수강생’=접수일 9월 3일(화)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대상은 영산강을 사랑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장소는 밀알회관 4층(북구 금남로 104) 062-526-0314, 010-2635-1080.

▲(사)‘장애인먼지’ 실천광주운동본부 자원봉사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 각종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 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배호 기족모임 광주지부(지부장 정종원)=불새출의 가수 배호가족 남여 회원 수시로 모집 010-7520-1112.

부음

▲김순남씨 별세 문용덕·옹철·옹진

4488.

▲최금남씨 별세 선옥·선식·도희·미금·선자·선단·선숙·정숙·선희씨

부친상=발인 28일(수) KS병원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960-4444.

▲김평기(전 전남도의원)씨 별세

죽기(전남도의원)씨 형제상=발인 28일(수) 나주 영산포 한우리장례식장 061-335-4949.

▲유종덕씨 별세 영태(전 광주

시 수도부분)·영석(사업)·영진(광주

시 어린이교통공원)·영길(사업)·영

춘(광주시 광주영어방송국 과견)씨 부친상=발인 27일(화) 광주천장례식장 201호 062-527-1000.

▲박양순씨 별세 김영식·영평·영숙씨 모친상=발인 2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윤애씨 별세 백형석·전무·강

자·강희·강순·강신·강미씨 모친상=발인 27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미용 까지 편 안한

금호 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행복을 빙니다

故김귀남 님(77세)

故장재범 님(남/69세)